

대구“세대를 넘어, 지역과 함께 내일(MY JOB)을 잇다”

- 노사발전재단 대구중장년내일센터,
‘2026 대구광역시 세대 상생 공동일자리박람회’ 개최 -
- 고용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구지역 7개 유관기관 MOU체결 -

노사발전재단 대구중장년내일센터(영남지사)는 오는 9월 9일(수),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1, 2층에서 지역 중장년 및 청년 구직자와 우수 기업을 연결하는 ‘2026 대구광역시 세대 상생 공동일자리박람회’를 개최했다.

박람회 개막에 앞서 지역 내 7개 유관기관(노사발전재단 대구중장년내일센터, 대구광역시 중구청,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복지+센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대구경북지역본부, 대구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, 대구보건대학교,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)과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고,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.

본 협약식을 시작으로 ‘2026 대구광역시 세대 상생 공동일자리박람회’가 본격 개막하였으며,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내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채용박람회는 “세대를 넘어, 지역과 함께 내일(MY JOB)을 잇다”라는 슬로건 아래,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내 우수 구인기업과 신중년·청년 구직자 간의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대구 지역 구직자와 채용을 희망하는 구인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모색했다.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▲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안내 및 상담(노사발전

재단 대구노사상생센터) ▲현장 채용면접(37개 기업) ▲박람회 참가기업 직무설명회 ▲1:1 맞춤형 취업상담 ▲이력서용 증명사진 무료 촬영 ▲적성 검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제공됐다.

특히, 대구중장년내일센터(영남지사)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퇴직 및 재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재취업 컨설팅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며, 신중년의 활기찬 제2의 인생 설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.

노사발전재단 오유경 영남지사 지사장은 “대구시를 비롯한 지역 내 15개 이상 유관기관이 함께 힘을 모은 만큼,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시너지를 내는 풍성한 세대 상생형 일자리 박람회가 되었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지역 우수 인재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전했다.

※ 주최·주관: 대구시 · 대구고용복지센터 · 대구광역시중구청 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노사발전재단 대구중장년내일센터 ·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· 제대군인지원센터 · 대구보건대학교 · 대구광역시청년센터 ·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· 한국노인인력개발원 ·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·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· 대구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

담당 부서	노사발전재단	책임자	센터장	노영현 (053-550-3001)
	영남지사(대구중장년내일센터)	담당자	과장	김선지 (053-550-3002)

